

국외 출장 보고서

- 연구과제: 산후조리원 적정 운영기준 마련 연구
- 출장기간: 2015년 5월 13일(수) ~ 2015년 5월 15일(금)
- 방문지역: 하치요 조산원 오토와바스, 무사시노 대학병원 부속 산후케어센터 사쿠라신마치, 세타가야구청 아동·청년부 아동가정과
- 출장자: 이소영 부연구위원(한국보건사회연구원), 조성호 부연구위원(한국보건사회연구원), 김영효(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)

1. 국외 출장 개요

- 출장 목적: 일본의 산후조리원 견학 및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 면담
- 연구 과제: 산후조리원 적정 운영기준 마련 연구
- 출장 기간: 2015년 5월 13일(수) ~ 2015년 5월 15일(금)
- 방문 지역: 하치요 조산원 오토와버스, 무사시노 대학병원 부속 산후케어센터 사쿠라신마치, 세타가야구청 청년·아동가정과

년/월/일	행선지	방문기관/면담자	세부 활동내용
2015/5/13	동경	이동	다음날 아침 일정으로 인하여 전날 출발
2015/5/14	동경	하치요 조산원 오토와버스(오전 9시 30분), 무사시노 대학병원 부속 산후케어센터 사쿠라신마치(오후 2시 30분)	산후조리원 견학 및 담당자 면담
2015/5/15	동경, 서울	동경 세타가야구청(오전 9시), 이동(오후)	세타가야구청 아동·청년부 아동가정과 공무원 면담

2. 방문 시설 소개

□ 하치요 조산원 오토와바스 (八千代助産院おとわバース)

- 동경 분쿄구 오토와 1-19-18의 6층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음(1층: 보육원, 3~5층: 모자보건센터)
- 조산원이기 때문에 출산도 가능하며, 동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더라도 입소가 가능함
- 서비스: 골반 다이어트 교실, 아로마 오일 마사지, 요가, 베이비 마사지 등
- 비용: 1박 2일 - 28,000엔

□ 무사시노 대학병원 부속 산후케어센터 사쿠라신마치 (武蔵野大学病院付属産後ケアセンター桜新町)

- 동경 세타가야구 사쿠라신마치 2-29-6에 위치하고 있음
- 일본 최초의 공립 산후케어센터라고 할 수 있으며 세타가야구의 위탁으로 운영됨(구립)
- 출산 후 4개월 미만의 산모가 입소대상이며 세타가야 구민일 경우 구에서 보조금이 지급됨
- 서비스: 수유 교실, 아로마 오일 마사지, 골반 및 발 마사지, 얼굴 에스테 등
- 비용: 1박 2일 - 32,900엔(단, 세타가야 구민일 경우 6,400엔)

□ 세타가야구청(世田谷区役所)

- 동경 23구 중 하나의 구로서 세대 및 인구가 가장 많으며, 구 면적이 58.08km²로 강동구와 송파구를 합한 것과 유사한 크기임
- 일본 내에서도 부촌이라고 할 정도로 고급 주택가가 많음

3. 주요 면담 내용

□ 하치요 조산원 오토와바스 원장: 요코즈카 카나(横塚夏奈)

- 산모의 산후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
 - 산후케어는 필요함

- 산후케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
 - 저출산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아기들을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이 엄마가 되는 여성들은 거의 혼자 불안을 갖고 육아를 하고 있으며, 산후케어는 이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됨
 - 또한 산모의 고령화로 인하여 산모 자신의 케어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케어를 받는 것이 필요함

- 현재 이 시설은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중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
 - 기본적으로 모자동실임

- 모자동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
 - 앞서 이야기 했지만, 산모가 자택에서 육아를 할 수 있게 수유 방법을 지도하며, 아기와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

- 현재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, 최적 직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
 - 상근과 비상근 포함하여 조산사가 10명, 사무 1명, 조리사 2명
 - 주간에는 임신 검진, 모유 외래 등의 외래업무와 신생아 방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산사를 2~3명 배치하고 있으며, 야간에는 조산사 1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음

- 이 시설은 처음 조산원으로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숙박이 가능한 산후케어

시설로 변경하면서 새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었는가

- 본 시설은 1979년 개원 초기부터 숙박이 가능한 산후케어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법 적용은 없었음

○ 화재 등의 안전 측면과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

-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계획을 세워 소방청에 제출하고 있으며, 조산원의 감염 예방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
□ 무사시노 대학병원 부속 산후케어센터 사쿠라신마치 원장: 하기와라 레이코(萩原 玲子)

○ 산모의 산후케어가 필요한지,

- 산후케어는 필요함

○ 산후케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

- 출산후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고 병원에서 육아지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퇴원하게 되는 상황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본인이 제대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산후케어 시설이 필요함

○ 현재 이 시설은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중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

- 원칙적으로 모자동실 형태를 취하고 있음

○ 모자동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

- 산모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
- 즉 신생아와 접할 기회 및 육아 경험이 없는 산모에게, 아기 바로 곁에서 돌

보게 하는 것을 통하여 아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함

-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모의 건강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되어야 하기 때문에, 출산 중 출혈이 많았다거나 분만시간이 길어서 산모의 건강이 악화되어 산모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음

○ 현재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, 최적 직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

- 현재 상근 조산사 3명, 임상심리사 1명, 보육사 5명, 사무 6명이 근무하고 있음
- 본 시설은 산모 담당제로 1명의 조산사가 4명의 산모를 담당함
- 수요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을 하고 있음

○ 화재 등의 안전 측면과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

- 소방법에 의하여 대피훈련을 1년 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건축기준법에 의거하여 본 시설 건물은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이 양 끝단 두 곳에 위치하고 있음
- 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문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(가글, 세수 등), 입소하는 신생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,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병원으로 유도하고 있음

□ 세타가야구청 아동·청년부 아동가정과 과장(世田谷区子ども・若者部 子ども家庭課 課長: 모모세 사토루(百瀬 秀))

○ 산후케어사업을 선구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

- 세타가야구는 「세타가야구 아동조례」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「세타가야

구 아동계획(2005-2014)」(이하, 아동계획)을 책정하여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, 산후케어사업은 아동계획 내 「육아지원분야」의 「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 서포트」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였고, 현재 「(제 2기)세타가야구 아동계획(2015-2024)」이 실시 중에 있음

- 또한 세타가야구는 동경내에서도 가장 많은 세대수와 인구를 자랑하는 구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조달이 다른 구보다 용이한 편

○ 산후케어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

- 산후케어사업의 최우선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이며, 이를 위해서는 산모가 산후 심신이 불안정한 시기에 육아 불안을 해소해야 하며, 이것이 곧 아동학대 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됨

○ 현재 세타가야구에는 무사시노 병원부속 산후케어센터 사쿠라신마치 하나만이 공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앞으로 시설을 증가시킬 계획은 없는지, 그리고 민간이 설립하여 구의 보조를 받는 형태도 가능한가

- 구 차원에서는 향후 공립 산후케어센터를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, 말씀하신 민간에 대하여 보조를 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음

○ 현재 세타가야구에는 몇 개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지, 그리고 그 현황은 어떤가

- 민간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, 현황 파악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됨

1) 18세 미만의 남녀를 모두 아동으로 하고 있음

4. 정리 및 시사점

- 일본 산후 조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²⁾,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최근에 와서야 생기게 됨(한국 산후조리원의 일본 소개로 인한 영향도 존재)
- 산후 조리원의 목적은 구에서 구상하는 것과 현장과의 괴리가 약간 있다고 사료됨
 - 구에서 최우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 방지임에 반하여, 현장에서는 산모가 자립하여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 인상을 받음
 - 그러나 결국 이 두가지 목적은 산모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,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수렴함
- 우리나라도 저출산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육아에 대한 정보를 가족 범위내에서 얻기 힘들고, 신생아 접촉 기회 또한 낮기 때문에 산모들의 육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아동학대가 앞으로 문제화 될 수 있음
- 현재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휴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, 대부분 모자별실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, 향후 산후조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
- 또한 화재 및 안전에 관해서는 소방법에 따른 정기적 대피 훈련과 감염 매뉴얼을 확립하여 각종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

2) 조산원이 산후조리의 역할을 해왔음